

반박해 15년, 파룬궁 진상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다

【밍후이왕】1999년 7월 20일, 강택민과 중공은 파룬궁에 대한 전면적인 박해를 발동했다. 그때로부터 전 세계 파룬궁수련생들은 평화적인 반박해 여정을 걸어왔다. 15년 이래 그들은 각종 방식을 이용하여 중공의 거짓말에 속은 세인들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렸다. 매 한 장의 전단지, 매 한 통의 전화, 매 한 편의 메일, 매 한 통의 메시지는 바로 이렇게 가려진 검은 철의 장막을 조금씩 찢어버리고 광명이 점차적으로 대지를 비추었다.

해외정요: 파룬궁수련생들의 15 주년의 반 박해는 사람을 탄복하게 한다.

호주 시민위원회 Peter Westmore 회장은 최근에 멜버른에서 열린 ‘평화적인 파룬궁 반박해 15주년 기념 집회’에 참석해 파룬궁수련생들의 15년 동안의 반 박해는 사람을 탄복 시켰으며, 이는 단지 파룬궁의 일만이 아니고, 중국의 미래와 연결되는 문제라고 했다. 그는 또 “파룬궁수련생들이 신앙하는 ‘真, 善, 忍(眞, 善, 忍)’은 세계의 보편적인 원칙으로서 오직 중공만이 지금까지 민중의 자유로운 신앙을 반대한다. 이는 중공의 본질은 곧바로 ‘거짓, 박해, 잔혹’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말했다.

호주 민주노동당 연방 재정장관 Gerard Flood는 집회 발언에서 파룬궁수련생들이 15년간 사회지역에 공헌 한데 대해 감사와 축하의 뜻을 표시하면서 “당신들은 ‘眞’을 견지하면서 무엇이 정확하고 공정한가를 밝혔고; ‘忍’을 실천하면서 당신들은 내심의 힘을 전시 하였는데 이



호주 멜버른 파룬궁수련생들이 시 중심에서 평화로운 반박해 15주년 경축 대행진을 한다.

것은 간고하고 평화로운 항쟁이 성공할 수 있는 관건이며; ‘싼’을 수련 하였기에 당신들은 당신들의 이웃을 사랑하였다. 이 일체는 당신들이 가장 우수한 인류의 미덕을 구비했음을 펼쳐 보였다.”라고 말했다.

대륙 민중들이 서명으로 중공의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반대하다

2014년부터 갈수록 더욱 많은 대륙민중들이 파룬궁수련생을 구출하는 안건에 서명하던 데로부터 파룬궁에 대한 중공의 박해를 정지할 것을 촉구하는 서명으로 발전했다.

2014년 5월부터 6월까지, 산둥 빈저우, 하북 랑방 두 곳의 305명의 시민들이 중공의 폭정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중한 서명으로 파룬궁수련생을 지지하고, 중공이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즉각 정지할 것을 요구했다. 사람들은 모두 사람의 도덕을 승화시키는 이런 공법은 마땅

히 중국사회에서도 정정당당하게 널리 전해져야 된다고 느끼고 있다.

사람들은 “그들(파룬궁수련생)은 사람마다 모두 좋아요. 그들이 ‘真善忍(眞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는 것을 우리 백성들은 마음속으로 그 누구보다 명백히 알아요. 이런 좋은 사람이 중국사회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라고 말했다.

15년간 파룬궁수련생들은 이성적인 반박해와 진상 알리기를 견지하여 왔는데 이는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올바른 믿음을 찾아 아름다운 미래가 있기를 위해서이다. 15년간의 혹독한 시련을 지나오면서 파룬따파의 진상과 아름다움은 이미 민중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으며 대기원 탈당사이트에는 매일 만 명의 단위로 중공에서 탈퇴하는 성명 인수가 늘어난다. ◇



도문시 파룬궁수련생 장숙현(张淑贤), 도문시 경찰에게 납치되어 하루 만에 살해당했다. 살인흉수는 끝까지 추적해 낼 것이다.

중국 대륙 조선족 파룬궁수련자들이 받은 박해진상 (런재1)

[밍후이왕]서문

조선민족은 동 아시아의 주요한 민족으로서 '한민족'이라고도 부르며 주요하게 조선과 한국에 분포 되어 있다. 조선과 한국의 주체민족으로서 중국 경내에 만해도 조선족이 190 여 만 명이나 있다. 조선족은 중국에서 대표성이 있는 한 개 소수민족으로서 오랜 유구한 민족의 전통 문화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고 많은 아름답고 심금을 울리는 전설들이 대대로 전해지고 있다. "진달래"라는 전설에서 진달래꽃의 유래를 서술하였는데, 무예가 아주 높은 오빠가 녀 동생을 구하려고 높은 관직과 많은 녹봉에도 유혹되지 않고 인간의 정의를 지키다가 결국은 장백산 아래에서 비참하게 죽었다 오빠의 상처에서 흘러내린 선혈이 방울방울 떨어져 장백산의 나무와 풀들을 물들였는데 전설에 의하면 피가 떨어졌던 모든 곳에서 예쁜 진달래꽃이 피어났다고 한다. 진달래꽃은 조선민족의 정직하고 선량하며 용감한 전통 미덕을 상징한다. 고찰에 의하면 조선족의 어떤 풍속은 불교의 예의와 풍습에서 왔다고 한다.

조선민족과 파룬궁은 아주 큰 연분이 있다. 1994년 8월 20일, 리홍쯔(李洪志)사부님께서는 조선족자치주 수도인 연길에 오셔서 친히 법을 전하셨다. 연변은 사부님께서 친히 법을 전하신 유일한 소수민족 지구였다. 기간 사부님께서는 세수의 시를 쓰셨고 또 친히 매 연공장마다 찾아 주셔서 제자들에게 녹음기를 사 주셨다, 그리고는 설법 반을 꾸리고 남은 돈을 전부 다 연변홍십자회(红十字會)에 증정하셨다. 사부님께서는 조선족 중생들에게 끝없는 자비를 주셨으며 연변대지에 무한한 생기를 주셨다. 이는 조선족 중생들의 최대의 영광이다.

본문은 밍후이왕에서 공개한 일부분의 자료에 근거하여 대륙 조선족 파룬궁 수련생들 정체의 박해 정황을 정리하여 민중들에게 공개한다. 희망하건대 세인들이 본문을 통해 조선족 파룬궁수련생들이 받은 박해를 요해하기 바란다, 이 한 무리의 선량한 민중들은 단지 '眞, 善, 忍(전, 썬, 런)'을 배워 좋은 사람이 되



잔혹한 박해로 사망했거나, 참혹한고문혹형을 받은 일부 조선족 파룬궁수련생들의 사진.

려는 것 때문에 바로 고문혹형, 노동교양판결, 유리걸식, 가정이 파탄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었다. 14년간의 피바람은 중공이 미친 듯이 파룬궁을 박해한 사악을 증명 할 수 있었고 사당당도들이 흉악하고 잔인하여 인간성이 멸절됐음을 충분히 증명 할 수 있었다. 14년간의 피바람은 파룬궁 수련생들의 진성과 관용, 순정과 선량, 자비와 견정을 더욱 견증했다.

1999년 7월 20일부터 중공이 파룬궁 수련생들에게 '명예를 실추시키고, 경제적으로 파탄 시키며, 신체적으로 소멸시키라'는 잔혹한 박해는 대륙의 모든 조선족 파룬궁수련생들에게 엄중한 박해를 조성했다. 이 14년간의 인간성을 잃은 잔인한 박해 중에서 적어도 35명의 조선족 파룬궁 수련생들이 중공의 박해로 사망하고; 불법 판결을 받았고, 노동교양과 지방 파출소, 수용소, 구치소, 610, 국보대대, 정신병원, 세뇌반과 본인의 직장, 가도, 각 향촌 등 비 공검법 계통에 납치된 인원수는 더욱 헤아릴 수 없다. 조선족은 전국각지에 분포되어 있어 상황이 복잡하여 여기에서 다만 부분사례만 종합하여 진술한 것으로서 근근이 14년간 중공이 조선족 파룬궁수련생들을 박해한 사례의 빙산일각일 뿐이다.

제1 부분 파룬궁수련생이 받은 전형적인 박해 사례

1. 박해로 사망된 사례

(1)중공의 감옥, 노동교양소에서 잔인한 박해로 사망한 조선족 파룬궁 수련생

①허기선(許基善), 남, 조선족, 41세, 대경 시 석유화학공장 건설회사 용광로건축회사 직공.

2004년 3월, 허기선은 진상자료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3년 불법판결을 받고 대경 감옥 제7 감시 구역에서 박해 받았다.

2005년 5월 21일, 대경감옥 악당은 회의를 열고 불법 납치한 파룬궁 수련생들에게 강도를 높여 박해할 것을 결정했다. 이튿날, 감옥장 장수천, 교육개혁과 과장 귀춘탕 등 한 무리 악경들은 강제로 파룬궁 수련생들에게 죄수복을 입게 했다. 많은 파룬궁 수련생들이 입지 않자 강박으로 옷을 벗기여 알몸으로 묶어놓았다. 수련생들이 단식으로 항의하자 차례로 병원에 보내 강제로 음식물주입을 했다.

그 동안에 악경은 허기선을 강박하여 7일이나 밤

낮을 가리지 않고벌을 세워 자지도 못하게 했다. 어느 날 허기선이 더는 서 있지 못하자 범인 감시자들이 허기선을 층 침대의 사다리에 묶어 놓았다. 몇 일이 지난 한 깊은 밤중에 갑자기 허기선의 사람 살리라는 비명소리에 놀라 많은 사람들이 깨어났다. 원래 한 악인이 파이프로 허기선을 향해 찬물을 뿜었기 때문이었다. 허기선의 숨옷, 내의까지 모두 흠뻑 젖었다.

2005년 6월 7일 오전 9시경, 범인 리렌차이는 허기선을 '세뇌'한다면서 당직 범인에게 두 개의 판자를 빼 내라고 말했다. 그 다음 그는 나무 판을 십자로 묶어놓고는 다른 범인에게 허기선의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묶으라고 했다. 묶은 다음 화장실로 들고 가서 창문을 닫고는 허기선의 입을 막은 다음 파이프로 찬물을 뿜었다. 점심 12시쯤 되자 악경 지도원 장더즈는 직접 화장실에 들어가 지휘를 했다. 오후 1시쯤 허기선은 화장실에서 들려 나와 병원으로 보내 구급했다. 그에게 옷을 입힐 때 어떤 자는 허기선이 죽은 척 한다고 했는데 그때 허기선의 호흡과 심장박동은 이미 멈춰있었다.

직접 참여한 주범은 대대장 리평장, 지도원 장더즈이고, 주요 흉수는 리렌차이, 부쑹, 귀리양, 왕안후이, 천중위이고, 공범은 저우샤오펬이 야오하이뉴, 우후옌이다.

2008년 올림픽 직전 흑룡강성 일부 파룬궁수련생들은 국제조직을 향해 흑룡강에 와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박해안건들을 현지조사 할 것을 희망하는 요청을 했다. 요청서에는 박해 받아 사망한 6명의 흑룡강 파룬궁수련생들을 예로 들었는데 허기선도 있다. 이 6명 수련생의 사망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잔혹하여 유체는 박해 증거로 오늘까지 보존하고 있다.